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4. / (총 10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장 태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양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장 호 연 이 석 준		044-202-3610 044-202-3721
중양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 장 담 당 자	이 경 진 김 문 희		044-202-2023 044-202-2031
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 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전파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시행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금) 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번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에서 운영되는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 *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에 따른 공동대응체계/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 : 사전준비, △100명 이상 : 수도권통합환자분류반 운영,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 가동 등
 - **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공동생활치료센터), △민간전문가 등
- 모의훈련은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에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하며,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의 본격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 △환자 분류 지연,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등) 병상 배정, △인력·물자 부족 등의 상황 등
-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 실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 치료와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의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병상 공동 활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실시계획(안) 】

- ▶ (일시/장소) '20.6.5(금) 09:30~12:00(예정) /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
- 사전설명 및 모의훈련(70분), 조별토의 및 발표(50분) 등
- ▶ (주관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국립중앙의료원
- ▶ (참석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지자체(서울/경기/인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기관(협력병원, 공동생활치료센터), △민간전문가 등

기관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지휘 총괄 - 확진자 병상 의료자원(인력·장비) 현황관리/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 지역별 초과 확진자에 대한 타지역 입원배정·이송요청(→소방청)
서울시·인천사경기도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협조 - 시도 병상현황 보고 및 신규확진자 관리, 병상배정 요청(→통합환자분류반)
소방청	○ 중증 확진환자 이송 및 구급차 배정 지원

- ▶ (훈련주제) 위기상황 별로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 통한 대응
 - ① 지역별 적정 치료병상 부족 : 시도 환자관리반 요청 → 통합관리분류반에서 수도권 내 협력병원·공동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② 특수환자(투석환자, 임산부·신생아 등) 치료병상 부족 : 수도권 내 치료기관 파악, 환자 배정·전원, 관계기관 협조(예: 소방청 이송 지원 등)

2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챌린지)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 최근 7주(4월 16일(목)~6월 3일(수))동안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6,5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750명의 국민이 공식 채널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으로, △#덕분에챌린지 36,588건
△#덕분에캠페인 17,792건 △#의료진덕분에 27,147건 △#thankstochallenge 2,415건

- 특히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전국 224개 소방서에서는 캠페인 참여 사진 119장을 활용해 '대형 포토 모자이크 액자(80*100cm)'를 제작하였고, 이를 지난 6월 1일(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달하였다.

- 소방청은 액자를 전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 소방서에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며, 의료진을 응원하며 하나로 모인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소방청 참여



대형 사진 모자이크 액자

○ 아울러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참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들은 캠페인 참여 사진과 함께 “시끌벅적했던 간호사 대기실과 환자 병실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으며, 곧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함께 전국으로 나들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는 희망과 바람의 말을 전하였다.



의료진 참여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참여 사진을 ‘스토리형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참여 중인 국민의 이야기는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주소 : 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국민 참여 스토리형 콘텐츠

3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3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6,551개소 △실내 체육시설 1,165개소 등 41개 분야 총 43,418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76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전라남도에서는 6월 3일(수)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경로당 9,121개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병의원 190개소를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소독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91개반, 1,116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912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421개소(56%)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491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개소(서울, 경기)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6월 3일(수) 오후 6시 기준, 4,10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2,810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41,245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0.6% 설치되었다.
- 어제(6.3)는 무단이탈자 3명이 주민센터나 약국 방문을 위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 전화와 앱을 통해 확인되어 1명은 고발하고, 나머지 2명은 계도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9명이며, 이 중 7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4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6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3일) 입소 143명, 퇴소 188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2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 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